* 글의 편의 상 반말로 표기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글은 일정상 게임참관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께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일

따르르르르릉~~ 익숙한 소리와 함께 일본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맞이했다. 전날 꽤 늦게까지 짐을 정리한 터라 몸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일본에서의 아쉬운 마지막 날, 이부자리에서 버벅거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뭐, 누워서 버틴다고 더 재워주지도 않겠지만 말이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후 다시 호텔방에 올 일이 없으므로 물건을 꼼꼼히 챙겨 로비로 내려갔다. 아침을 먹으러 가며 전날 가이드의 충고를 상기했다. '점심을 늦게 드시게 될 거니까 양식당에서 뷔페를 드시고 바나나를 꼭 챙겨 놓으세요.' 그래...바나나. 우리 일행은 두 번 생각 안하고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한 우리 버스 사람들이 와 있어서인가 레스토랑 매니저가 빈 자리가 없다고 되도록 일식당을 이용해주길 권했다. 우리 뒤에도 줄이 서기 시작하고 얼마 남지 않은 집합시간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웃는 얼굴로 자리를 안내하는 매니저. '어이, 자리 없다더니? 뻥이었냐...?' 자리 없다고 한지 2분도 안되어서 자리에 앉게 되니 기분이 묘했지만 나쁜 일은 아니었다. 부랴부랴 죽과 오믈렛, 팬케이크 등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바나나를 챙기려니(이게 주목적)...가이드를 원망해야 하는 것인지, 호텔측의 노련함에 감탄해야 하는 것인지...바나나는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 있었다. 간단한 허기 모면용으로 바나나 몇 개를 챙기려던 계획은 멋지게 빗나가고 맛있는 아침을 먹었다는 것으로 위로하여 식당을 나섰다.

K-1의 용사들

오늘은 가슴 뛰게 하는 게임쇼 관람도 없고 일반 관광코스와 다름 없는, 그저 평이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조금은 심드렁한 기분으로 시작되는 하루였는데 눈이 확 뜨이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필자가 즐겨 보는 K-1의 선수들이 로비에 여럿 보이는 게 아닌가. 시기 상 K-1의 도쿄 예선전이 벌어지는 때였는데 그 선수들이 바로 이 호텔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좋은 호텔에 묵었음을 새삼 고맙게 여기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레이 세포, 개리 굿리지, 피터 아츠 등의 사진을 찍고 나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인데도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개리 굿리지와 상천씨의 한 컷. 상당히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친절하고 멋진 포즈를 알아서 잡아주는 등 매너가 좋은 선수였다.

일본 천황이 산다는 황거

며칠 더 묵기로 한 득규씨는 일정이 달라져 다른 버스에 탑승하고 필자가 탄 버스는 출발~ 어김 없이 한바탕 졸고 나니 일본의 천황이 살고 있다는 황거에 도착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이나 덕수궁쯤 되려나. 솔직히 일본 천황이라는 이름에 좋은 인상이 있을 리 없지만 관광거리로 여겨준다는 것이 또한 묘한 기분을 안겨주어 마음을 비우고 버스에서 내려 구경에 나섰다. 볼게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사령부로 쓰였다는 건물과 커다란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으로 잘 심어져 있는 공원은 꽤 인상적이었다.

주차장 근처에 압박적으로 서 있는 장군상(진짜 이름은 모른다) 호전적인 기상이 느껴졌다.

황거의 입구. 가끔 휴일에 천황이라는 사람이 마차 타고 나와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데 비가 와서 무산

나무들은 상당히 멋졌다.

한국전쟁 시 연합군의 사령부였단다. 일본을 살 찌워준 전쟁이었으니 기념할 만도 한가.

빠질 수 없는 메뉴, 아키하바라.

황거에서 주어진 한 시간의 짧은 관광을 마친 후 이동한 곳은 전자제품 상가와 게임관련 상품 매장이 즐비한 아키하바라. 사실 일본 도쿄 근처의 관광코스라면 빠지지 않을만한 곳이다. 종종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용산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많은 게임전문상가와 관련 캐릭터 전문매장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 각자가 보물창고처럼 보이는 것은 용산에선 힘든 일이다. 오전 일정을 다른 곳에서 보낸 득규씨와 합류하여 가이드가 안내한 면세점에서 간단한 선물을 구입한 후 자유시간 동안 여기저기 신나게 구경을 다녔다. 가정을 이루시고 아이까지 두신 상천씨는 아이들의 장난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성애를 보여 주셨다.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금연안내표지. 비흡연자인 필자는 국내에도 이런 곳 한두 곳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잡화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팔고 있는 각종 모형무기들. 개중에는 맞으면 진실로 아플만한 것들도 팔고 있었다.

게임숍에선 마그나카르타가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었다. 비록 우리나라 개발사가 직접 마케팅하는건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동경게임쇼에서도 못해본 베르세르크의 체험판을 해볼 수 있었다. 회장에서와는 달리 한산하여 여유 있게 즐기고 있는 필자. 느긋함이 느껴지는가.

매장 내에서 사진을 찍다가 주인의 험상궂은 반응에 쫓겨나오듯이 나오기도 하고 게임매장 앞에서 동경게임쇼 참관 시 엄청난 대기시간에 질려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던 베르세르크 체험판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낼름 달려들어 플레이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몇 년 전 아키하바라에 왔을 때는 저녁때라 매장들도 많이 문 닫을 닫은데다가 세가클럽에서 일본고수들과 버추어 파이터 대전을 벌이느라 이렇게 넓은 줄 몰랐지만 정말 볼 곳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았다. 아는 동생이 부탁한 게임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생각보다 비싼 중고가격에 놀라 (알고 보니 여전히 인기가 있어 품귀현상이 생길 경우 출시가격보다 중고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포기하면서 일본의 남다른 게임 인프라에 다시 한번 놀랐다. 캐릭터 매장도 한군데 골라 구경하면서 필자의 작은 수집품인 건담 피규어 한 개를 싼 값에 구입하고 코인으로 뽑는 피규어 몇 개를 더 손에 넣은 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합장소로 향했다. 혹시 코인 넣고 뽑는 피규어를 좋아하신다면 동전을 많이 마련해 두시기를. 특이하게도 일본 가게에서는 동전교환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심지어 자기네 피규어 판매기인데도 그렇다) 자동 교환기 없으면 낭패.

온갖 피규어를 다 팔고 있던 가게의 정문 옆에는 실물 크기의 레이와 죠가 버티고 서 있었다.

버스에 타기 전 함께 찰칵- 득규씨는 추가 체제기간 동안 머물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떠나갔다.

일정 종료

버스에 타서 전리품들을 정리한 후에 창 밖을 내다보니 버스는 공항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그렇다. 벌써 집에 갈 시간. 2박3일, 사실 길지 않은 일정이기도 했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동경게임쇼를 보도자료나 게임관련 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얻는 것이라는 생각에 느긋하고 만족스런 기분에 젖어들 수 있었고, 가이드가 얘기했던 일본에서의 최후의 만찬인 고기와 회초밥 뷔페에 대한 기대감만을 떠올리며 버스의 진동에 몸을 맡겼다. 사실 배가 무지 고팠다. ㅡ_ㅡ..

공항으로 신나게 달리는 버스. 입구 근처 묘한 위치에 달린 TV는 본연의 임무는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주제에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동 중에 눈에 띈 거대 관람차.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눈이 절로 휘둥그레진다.(그래봐야 얼마 안 크다 ㅡ_ㅡ)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타보고 싶다.

최후의 만찬. 만찬?

아쉬운 마음에 모처럼 졸지 않고 창 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해결할 식당에 도착했다. 뷔페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마음에 마음이 노골노골해졌다가 시간이 다소 지연돼 식사를 빨리 해달라는 추가 주문에 다소 실망하면서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전형적인 고기뷔페였지만 6인 식탁 한가운데에 있는 앙증맞은 불판이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많이 굽더라도 기껏해야 2인분 구우려나...식당의 요금 과금 방식이 대인소인 구분인데다가 시간당 얼마라는 식이라는 것과 맞물려 쪼잔함과 장삿속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하긴 양 무제한에 시간 무제한이면 남는 게 있겠는가? 일단 흔하게 먹지 못할만한 생간과 오리로스 등의 고기를 골라 구우면서 가이드가 몇 번이나 강조한 '맘껏 먹을 수 있는' 회초밥을 찾아봤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되지도 않는 말로 물어서 회초밥 코너를 찾아가본 순간 필자, 상당한 배신감과 함께 맞물려 후회가 밀려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그냥 회초밥을 사 먹을걸.' (2편 참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뷔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대충 만든, 것도 몇 종류 없는 회초밥을 접시에 덜어 먹었다. 많이 기대했던 만큼 꽤 큰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뭐 어쩌겠는가. 게다가 공짜인걸. 열심히 구워 먹고 우동도 한 그릇 비우니 그래도 꽤 포만감이 들어 버스에 앉았을 때는 실망감이고 뭐고 없어져버렸다.

1층은 할인매장. 2층은 고기뷔페라는 묘한 건물. 관광객 적극유치라는 목적의식이 느껴졌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회초밥.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니 올려져 있던 새우가 톡 떨어지며 와사비도 없는 맨몸을 드러내 필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공항에 도착

버스는 다시 이동. 15분쯤 후엔 나리타 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우리를 내려 주고는 사라졌다. 수속을 위해 기다리면서 보니 공항은 역시 북적북적. 한국말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이제 정말 짧은 일본여행이 다 끝났구나 싶으니 부족한 잠과 함께 피곤이 밀려왔다. 정말 자리라도 깔면 바로 누워 잘 수 있을 정도였지만 어차피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사진만 찰칵찰칵-

뻘쭘하게 한 컷. 뒤엔 수 많은 사람들이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좋은 분위기.

비행기 탑승과 이륙, 그리고 한국

수속을 별일 없이 마치고 (뭐 별일이 생길 것도 없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비행기에 탑승. 올 때는 엄청 불편한 자리에 옆의 아저씨는 타액분사 재채기 신공 때문에 쾌적하다고는 할 수 없는 비행이었기에 되도록 좋은 자리를 바랬는데 다행히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아서 비교도 안되게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